

“농촌 인력난 해소”...해남군, 최대 규모 계절근로자 투입

3천81명 배정...전국서 2번째로 많아
영세농 지원 '공공형 근로' 4곳 확대
전용 기숙사 신축 등 체류 환경 개선
초청 자격 2촌 제한...브로커 차단도



해남군이 3천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해 농번기 인력난 해결에 나선다. 사진은 최근 해남 육촌농협에서 진행된 외국인 근로자 환영식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농촌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영농 현장에 긴급 수혈한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광주출입국사무소 신청과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3천8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는 농업 분야를 기준으로 전국 2위이자 전남 지역 1위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규모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과중·수확기 등 농번기에 5~8개월간 단기로 외국 인력을 합법 고용하는 제도로, 군은 2022년 첫 도입 이후 매년 가파르게 규모를 키워왔다.

올해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11개 해외

지방정부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900여농가를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해 고용주 의식 개선에 나섰다.

인력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군은 황산면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58억원

을 투입해 거점형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완공, 지난해 11월부터 황산농협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여기에 송지면 금강리 일원에도 17억원을 들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신축하며 체류 환경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와 조기 적응을 위

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위해 군은 입·출국 버스 임차료와 2차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는 물론 성실히 근무하고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편도 항공료까지 전폭 지원한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정과 내에 필리핀·베트남 통역도우미를 전담 배치했으며, 단기 일손이 필요한

영세 소규모 농가를 돕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대폭 강화했다.

올해부터 황산·망골·문내·옥천농협 등 4개소에 120여명의 인력을 고정 배치해 농가 필요할 때 일당제 방식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제도 확대에 따른 불법 브로커 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범위를 기존 4촌에서 2촌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초청자의 거주지 역시 광주·전남 지역으로 엄격히 제한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기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히 근무한 뒤 재입국이 검증된 근로자는 종전 기준(4촌 이내·전국 거주)을 유지해 인력 수급의 유연성은 살렸다.

해남군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절근로자 투입이 농번기 영농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현장 지도를 통해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 예덕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승격

영산강 유역 마한 묘제·의례 가치 인정
7만2천여㎡...보존·역사관광자원 육성



함평군이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 문화의 정수를 담은 고분군을 체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자원 육성에 나선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국가지정문화유산 고시에 따라 월야면 예덕리 일원에 자리한 ‘함평 예덕리 고분군(사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군 역사상 최초로 앞으로 학술 조사와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거쳐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역사 관광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정된 구역은 총 54필지 7만2천789㎡(문화유산구역 1만4천99㎡·보존구역 5만8천730㎡) 규모로 함평군이 직접 관리 단계를 맡는다.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위치한 예덕리 고분군은 3~5세기에 걸쳐 조성된 총 14기의 무덤으로 구성됐다.

한 분구 안에 여러 매장 시설을 두는 마한의 전통적 다장장법과 함께 목관에서 옹관으로 변

화하는 묘제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특히 고분군 중앙부에서는 제사 의식을 위해 나무 기둥을 세웠던 특이 형태의 구덩이인 ‘이형토갱(異形土坑)’이 발견돼 마한 사회의 의례 체계를 규명하는 고고학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해당 유적은 지난 1981년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제형(사다리꼴) 분구묘 형태와 다양한 유구들이 파악되며 학술적 가치가 꾸준히 입증돼 왔다.

함평군 관계자는 “예덕리 고분군의 사적 지정은 함평의 고대 역사와 마한 문화의 진가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통해 함평 마한 문화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진도군, 올해 물김 위판 2천400억 달성

12만2천여t 수확...생산 인프라 구축

일궈냈다. <사진>

진도군이 어려운 해양 환경 속에서도 2년 연속 물김 위판액 2천400억원을 돌파하며 전국 최고 김 생산지의 위상을 굳혔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올해산 물김 생산에서 총 12만2천866t을 수확해 2천474억원의 위판액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김 가공 분야에서도 1천900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면서, 김 산업 전반에서 2년 연속 총 4천500억원 규모의 압도적인 생산 성과를

군은 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 인증부표 보급과 활성 처리제 지원 등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의 명품 김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진도 해역은 수온 불안정과 양식장 갯벌 발생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해황이었으나, 전국 최대 규모인 1만6천43ha·20만3천147척의 양식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극복해냈다.

진도군 관계자는 “역경 속에서도 지난해와 변함없는 결실을 거두며 최고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내년에도 청정 진도 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무안군-목포대, 만성질환 예방 ‘맞손’

청년층 타겟 건강관리 협력망 구축

분위기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이 지역 대학과 손잡고 주민과 청년층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체육학과 및 운동처방재활센터와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청년층의 건강 위협 요인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해, 조기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돕는 실천 교육과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체력 평가와 운동 처방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지역사회와 대학 캠퍼스를 아우르는 건강



증진 연합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며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무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청년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조기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지역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지역사회 예방·관리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완도군, 청산·보길도 체류형 걷기 명소 조성

도 공모 선정...치유·인문학 코스 운영

체류형 프로그램을 제안해 평가위원들로부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완도군이 지역의 대표 섬인 청산도와 보길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해양치유와 인문학을 결합한 맞춤형 체류 관광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가 주관하는 체류형 걷기 관광 프로그램인 ‘섬섬 걸을래’ 공모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맞아 단순한 일회성 섬 방문을 넘어 걷기와 숙박, 체험, 문화를 한데 묶은 새로운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완도군은 청산도의 슬로시티 브랜드와 보길도의 역사·인문 자원을 연계한 1박2일 이상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제안해 평가위원들로부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청산도 슬로길 걷기를 비롯해 명사십리 등과 연계한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고산 윤선도의 숨결을 담은 보길도 인문학 토크 콘서트가 연이어 진행된다. 여기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선보이는 섬 특화 식단과 전문 해설 서비스 등을 더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잠재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지역에 오래 머물며 섬의 자연과 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완도군이 지역의 대표 섬인 청산도와 보길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해양치유와 인문학을 결합한 맞춤형 체류 관광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가 주관하는 체류형 걷기 관광 프로그램인 ‘섬섬 걸을래’ 공모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맞아 단순한 일회성 섬 방문을 넘어 걷기와 숙박, 체험, 문화를 한데 묶은 새로운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완도군은 청산도의 슬로시티 브랜드와 보길도의 역사·인문 자원을 연계한 1박2일 이상의

영광군, 맞춤형 환경정화 ‘클린농촌단’ 출범

농식품부 공모 선정...읍·면별 조직

영광군이 고질적인 농촌 방치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맞춤형 환경정화 체계 구축에 나선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농촌환경 개선을 최일선에서 이끌어갈 ‘클린농촌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시책인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 단체 공모를 거쳐 읍·면별 10명 내외로 치밀하게 조직된 클린농촌단은 앞으로 지역 곳곳의 방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발대

식에는 송광면 영광군수 권한대행과 지역 농업경영인 회원 등 1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굳은 실천 의지를 다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촌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며 “클린농촌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군이 고질적인 농촌 방치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맞춤형 환경정화 체계 구축에 나선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농촌환경 개선을 최일선에서 이끌어갈 ‘클린농촌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시책인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 단체 공모를 거쳐 읍·면별 10명 내외로 치밀하게 조직된 클린농촌단은 앞으로 지역 곳곳의 방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발대

농어촌공사 나주시사, 산호지구 배수개선 설명회

상습 침수 예방·주민 의견 수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상습 침수 농경지의 배수 불량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에 따르면 최근 문평면 복지회관과 다시면 마을회관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는 농경지에 배수장을 신설하고 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주요 시설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상습 침수 농경지의 배수 불량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에 따르면 최근 문평면 복지회관과 다시면 마을회관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는 농경지에 배수장을 신설하고 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주요 시설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 /나주=정훈환 기자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원활한 영농 활동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류화열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해 예방과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훈환 기자